■ 경제돋보기

지역 상장사 전국 최저 왜?

오너 1인 체제, 기업 공개 꺼려

폐쇄적 경영 관행 고수… 최근 3년 상장사 전무
자금조달·브랜드 이미지 제고 창구 활용 해야

자본시장의 꽃인 증권시장에 상장된 광주·전남지역 기업이 전국에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3년동안 국내 증시에 상장된 지역 기업이 하나도 없는 가운데 기존 상장업체 마저 본사를 타지역으로 옮기거나 상장폐지되면서 상장업체 수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국내 기업은 모두 1천729개로, 지역 업체는 전체의 1.3%인 24개사(광주 14개사, 전남 10개사)에 불과했다.

광주는 광역시 가운데 인천(80개), 부산(68개), 대구(44개), 대전(29개), 울산(24개)에 이어 최하위이고 전남은 강원(4개), 제주(2개)를 제외하면 전국에서 가장 적은 수치다.

더구나 2006년이후 신규 상장된 기업은 169개사였지만 전남에서는 한 곳도 없었고 광주는 1곳 뿐이었다. 광주의 1곳도 지난해 10월 부국철강이 코스닥시장에서 유가증권시장으로 옮긴 것을 감안하면 신규 상장된 지역 업체는 전무한 실정이다.

오히려 코스닥 상장사로 담양에 본사를 뒀던 디지털텍이 지난달 서울로 본사를 옮겼고 목포의 C&중공업이 상장폐지 결정으로 정리매매가 진행되는 등 최근 지역 상장사 2개가 줄어들게 됐다.

지역 상장사 비중이 전국의 1.3%에 불과한 것은 지역 경제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5.4%)과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2007년말 기준으로 제조업체 수는 광주가 7천455개, 전남이 1만236개로 각각 전국의 2.3%와 3.1%를 차지하고 있다.

2006년 이후 신규 상장기업

지역별	유가증권	코스닥
서울	16	53
경기	6	59
부산	1	6
대구	1	3
인천	3	5
대전	1	6
울산	2	1
광주	**1**	**0**
전남	**0**	**0**
전북	0	3
경남	0	8
경북	0	2
충남	3	11
충북	0	8
강원	0	0
제주	0	0
합계	36	169

※광주 1곳은 코스닥시장에서 유가증권시장으로 옮긴 부국철강

이처럼 광주·전남지역 상장사가 적은 것은 기업주들의 폐쇄적인 경영과 기업공개에 대한 무관심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실제로 증권시장에 상장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지역기업은 현대삼호중공업, 삼성광주전자, 한국바스프 등 유가증권시장이 60여개사, 코스닥시장이 한국번디, 무등, 연호전자 등 40여개사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업체들은 상장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고 한국시멘트만 주간사를 선정하고 상장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 김정원 소장은 "기업공개에 무관심한 이유는 자금조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도 원인이지만 투명경영과 공시 전담인력 배치 등 상장으로 인해 지켜야 할 의무에 부담을 느끼는 등 폐쇄적인 경영 때문"이라며 "상장을 통한 자금조달과 브랜드 이미지 제고가 필요한 시점으로 상장사가 많을수록 지역 투자자들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광주 첨단-대전 대덕 상장사 비교

0대19

'0대 19'.

광주 첨단과학산업단지와 대전 대덕연구단지의 국내 증권시장 상장기업 수치를 비교한 것이다.

대전 대덕단지가 지금까지 19개사를 증권시장에 상장시켜 자금조달 창구로 활용하고 있는데 반해 광주 첨단산단내 기업들은 아직까지 한 곳도 증권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왜 이런 격차가 생겼을까. 원인은 단지의 성숙도와 입주 기업의 기술력 차이에서 찾을 수 있다.

우선 단지의 역사와 규모에서 차이가 있다. 대덕단지는 1978년에 조성돼 역사가 30년이 넘는다. 반면 첨단산단은 1991년에 조성돼 90년대 중반부터 기업들이 입주하기 시작했다. 입주 기업체 수도 지난해 말 기준으로 대덕단지가 898개사, 첨단산단이 368개로 격차가 크다. 여기에 대덕단지는 2005년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돼 전국 연구장비의 21%, 박사급 연구인력의 10%를 보유하는 등 입주기업 성장을 위한 지원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첨단산단 기업엔 일정 규모 이상의 중견기업이 없다. 아직까지 상장사를 배출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이다.

첨단산단내 한 관계자는 "현재 상장 요건에 근접한 업체수는 7~8개에 달한다"며 "최근 LED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는만큼 LED를 중심으로 한 광산업체가 2~3년내에 상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장필수기자 bungy@

기아차 쏘렌토R 전시 3일 경기도 여주 프리미엄아울렛에서 열린 기아자동차 쏘렌토R 전시회에서 도우미들이 쏘렌토R의 부드러운 프리미엄 이미지를 설명하고 있다. 〈기아차 제공〉

光銀 가정의달 우대금리 적용
어르신·어린이 예·적금 출시

광주은행은 3일 "5월 한 달 동안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 500만원 이상(최고 1억원까지)의 정기예금에 가입하면 0.2%를,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정기적금을 가입하면 0.2%의 우대금리를 각각 제공키로 했다"고 밝혔다.

광주은행은 또 VISA카드로 20만원 이상(체크카드는 10만원 이상)을 사용한 회원 중 어린이날 등 각종 기념일별로 추첨하여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광주은행 기프트 카드를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한편, 광주은행은 5일 어린이날에 광주비엔날레광장에서 '제8회 어린이날 그림대회'를 개최하고, 12일에는 광주공원에서 독거노인을 위한 잔치를 벌인다. /장필수기자 bungy@

어린이 최고 주식부자…GS家 8세男 234억

우리나라 최고의 어린이 주식부자는 200억원이 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재계 전문 사이트 재벌닷컴이 상장사 대주주 자녀 및 친인척 중 만 12세 미만의 어린이가 보유한 주식 지분가치(4월30일 종가 기준)를 평가한 결과 1억원이 넘는 주식부자는 75명이었다.

이 중 보유지분 가치가 10억원이 넘는 어린이는 100억원 이상 2명을 포함해 모두 8명이었다.

평가 결과 허용수 GS홀딩스 상무의 아들 석홍(8)군이 234억원으로 어린이 주식부자 1위였고, 허태수 GS홈쇼핑 사장의 딸 정현(9)양이 102억원으로 2위였다.

또 정몽익 KCC 사장의 아들 제선(11)군이 98억원으로 3위, 허창수 GS그룹 회장의 친척인 선홍(10)군이 35억원으로 4위를 차지했다. 이어 이장한 종근당 회장의 딸 주아(12)양이 18억원으로 5위, 이종호 중외제약 회장의 손자인 기환(12)군이 15억원으로 6위를 기록해 제약회사 오너가 자녀들이 5, 6위에 연이어 올랐다. /연합뉴스

로또복권 (제335회)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당첨자 수
5	9	16	23	26	45	21	

등 위		당첨금(원)	
1	6개 숫자 일치	2,037,492,480	5
2	5개숫자+보너스 숫자일치	60,639,658	28
3	5개 숫자 일치	1,389,453	1,222
4	4개 숫자 일치	56,057	60,578
5	3개 숫자 일치	5,000	1,001,927

팝콘복권 (제158회)

등위	당첨금(원)	당첨번호	
1	5억	5조	592078
2	1억	1조	655341
		3조	302606
3	1천만	1등과 조가 다른 번호	
4	1백만	각조	38303
5	50만	각조	2625
6	2천	각조	85
		각조	28
		각조	49
7	1천	각조	5
		각조	0
		각조	7